

# 金銅誕生釋迦像小考

李 浩 官

佛像의 如來部에 있어서 釋迦如來像을 비롯한 여러가지 佛像의 形態와 姿勢가 있었으나 그 中의 하나인 誕生釋迦佛에 對하여는 現今까지 나타나 紹介된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고 불과 數十點에 달할 정도이며 그 鑄造年代와 時代를 評함에 있어서도 定立된 體系나 한계가 모호하고 劃一的인 것이 못되어 오고 있다.

그리하여 今般江華에서 出土申告된 誕生佛를 비롯하여 國立中央博物館所藏品과 個人 및 기존 研究誌에 紹介發表된 몇몇 例를 綜合하여 誕生佛像에 對한 樣式과 形態 및 時代를 살펴 보고자 한다.

誕生釋迦像은 釋迦가 誕生하자마자 「天上天下唯我獨尊」을 부르짖으며 座、立、動、步、走、飛、舞、歸의 起居動靜의 모습위에 佛法을 表現한 中步에 해당되며 七步를 걸은 후 右手를 들어 天上天下唯我獨尊을 부르짖은 全身裸形의 釋迦世尊像을 말하며 ① 佛像의 姿勢分類에서도 交脚像 및 倚像과 더불어 特異한 姿勢의 像에 屬하는 ② 佛像으로서 一九七七年 八月 二五日 京畿道 江華郡 江華邑 菊花里 清水庵 절터에서 出土된 金銅製誕生佛을 비롯하여 國內外에 所藏된 數十點에 對한 것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各已佛像이 갖고 있는 形態와 樣式 鑄造年代를 推考하며 紹介하고자 한다.



圖 1. 金銅誕生佛

1、江華菊花里清水庵十二寺址出土 金銅誕生佛(圖1)

一九七七年 八月二十五日 京畿道 江華郡 菊花里 五五〇番地 在清水庵遺址를 경지하다가 王연장氏에 依해 發見된 誕生佛로서 그 形像은 裸像으로서 허리부분서 부터 무릎 부분까지 裳衣를 걸치고 있는바 裳衣의 前後面 中心部는 U字形의 衣紋을 나타내고 그 가장자리는 사실적이요 굽게 波狀文樣의 衣褶을 갖추고 있다. 右手는 現在 손목 部分以上이 缺失되어 있으나 天上을 가리키고 左手역시 右手와 같이 缺失되었으나 天下를 가리키는 通例 樣式을 하고 있는 誕生佛이다.

佛像의 머리는 螺髮이며 肉髻를 갖추고 있고 앞머리 部分에는 高麗佛에서 ③ 흔히 보이는 剃髮한 部分이 돌기되어 나타나 있고 兩耳역시 襟게 늘어져 있다. 尊容은 살이 찢 肥滿形이며 콧날은 매우 리코이고 半開한 兩眼과 口술이 두툽한 口를 굳게 다물고 있으며 목에는 三道の 흔적이 보이거나 뚜렽하지 못해 不明하다. 上半身에 이르러서는 胸만한 어깨에 젖가슴이 도드라져 있으나 가슴中央에 「卍」字를 음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相好의 全體의인 形像은 華城郡紙串里出土 高麗觀音菩薩立像의 ④ 相好와 類似한 點을 갖고 있으며 佛像의 台座는 單瓣三重葉으로 된 仰蓮台座로서 他誕生佛像의 例와는 특이하게 다른 台座를 갖추고 있다. 또한 台座下部는 다른 附屬物이 附着되어 있었던 흔적이 보이거나 現在 破損과 腐蝕이 심하여 그 一部分이 現存하고 있는 實情이며 佛像과 台座가 同時에 一體로 鑄造된 것이 아니고 各各 別個로 鑄造하여 結合시킨 手法을 나타내고 있다. 誕生佛全體에는 두터운 金箔이 덮여 있었으나 여러부분이 심하게 脫落되어 있는 상태이다.

全體의 體로 보아 誕生佛自體가 나타내는 풍모라든가 尊容과 衣紋等이 高麗佛에서 보이는 樣式과 手法을 充實히 따르고 있어 적어도 十二세기 이전의 高麗中期作品으로 推定되는 秀作의 佛像으로 생각된다.

總高 一一·四 cm 身高 一一·四 cm 台座高 三·六 cm  
台座徑 六 cm 台座內徑 四 cm

2、忠南錦山出土 金銅誕生釋迦像(圖2)

이 誕生釋迦像은 國立中央博物館所藏의 佛像(所藏番號 一四三九三)으로 一九四〇年 三月 三〇日 國庫歸屬된 것이며 忠南道 錦山郡 珍山面 三佳里 火田에서 金顯奎가 發見한 總高 四·六 cm、身高 三·二六 cm、台座高 一·三四 cm의 佛像이다. 素髮에 肉髻를 갖추고 光背가 缺失되고 金箔이 심하게 脫落되어 尊容과 裳衣紋樣을 確實히 區分할 수 없는 狀態가 좋지 않은 裸像이나 裳衣의 윗 部分에는 희미하게도 裙衣의 跡가 남아 있다. 또한 台座와 佛身이 一體로 鑄造되었고 圓形의 台座는 單瓣



圖 2. 金銅誕生釋迦像



圖 3. 青銅誕生釋迦像



圖 4. 金銅誕生釋迦像

伏蓮座이며 右手는 어깨와 水平하여 들고 있고 左手는 허리에 附着되어 아래로 하고 있는 形像이나 全體적으로 나타내는 樣式과 手法 특히 台座에서 보이는 蓮瓣의 彫飾手法 그리고 尊容에서 나타내는 均衡있고 날카로운 三國時代 佛像에서 보이는 特徵을 구비하고 있는바 이런 점으로 볼 때 佛像역시 三國時代(新羅佛)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본다.

### 3. 慶北安東出土 青銅誕生釋迦像(圖 3)

一九四一年二月五日 埋藏物로서 國庫에 歸屬되어 現在 國立中央博物館에 所藏(所藏番號一四五二四)된 全高七·七一cm의 佛像이다. 慶北道 安東郡 南後面 水子洞 大峴山 中에서 發見된 것으로 素髮에 肉髻를 갖추고 목에서부터 양어깨를 거쳐 가슴까지 一聯으로 흘러내린 瓔珞을 表現하고 있고 尊容은 兩長耳를 갖추고 있으며 兩眉와 兩眼이 부드럽게 正眠으로 表現되어 있으며 두툼한 콧날과 미소를 머금은 듯한 입은 몸시도 부드럽게 나타내고 있다. 허리에는 袈衣의 띠가 뚜렷하게 表現하면서 그 밑으로 걸친 裳衣는 몸시도 單純하며 簡潔하게 취급하였다. 右手는 손바닥을 펴서 위를 가리키고 左手는 佛身에 密着시켜 아래를 가리키고 있으며 두다리 역시 서로 附着되어 不動姿勢로 台座를 딛고 있

는 모습이다. 佛身全體에 黑綠銹化가 심하나 원래는 金箔이 鍍金되어 있었는 듯 하다.

全體적으로 보아 佛像의 양식과 尊容, 그리고 鑄造手法 등에서 보이는 線의 感覺은 慶州南山 三花嶺出土 石造三尊佛이나 慶州 拜里 三體石佛立像 등에서 보이는 그런 부드러운과 尊容이 類似한 點等으로 볼 때 本誕生佛역시 그 製造年代가 古新羅末·統一初에 해당되는 秀作의 誕生佛로 推定된다.

### 4. 金銅誕生釋迦像(圖 4)

一九二六年三月二四일에 國庫에 歸屬된 것으로 全高 一六·四八cm, 身高 一〇·一六cm, 台座高 二·四八cm이며 出土地와 發見경위를 알 수 없는 國立中央博物館所藏(所藏番號三六九)의 誕生佛像이다. 佛像의 形像은 素髮에 약간 도톰한 肉髻를 갖추고 손바닥을 편 左手를 높이 들었으며 右手역시 손바닥을 펴고 아래를 가리키고 있다. 허리에는 太彫線의 袈衣 띠를 나타내고 그 밑으로 짧은 통치마를 두른 듯한 簡潔하고 아무 문양이 없는 裳衣를 걸치고 있으며, 두다리는 곧게 뻗어 발을 앞으로



圖 5. 金銅誕生釋迦像

로 하여 單瓣圓形 仰蓮伏蓮의 二重台座를 聳고 있는 一造로 鑄造된 像이다. 裸像의 全面에는 金箔이 鍍金되어 있었으나 상당 부분이 剝락된 상태이고 尊容은 圓만하나 兩眼과 콧날이 약간 答答한 貌을 풍기고 오물어져 담은 입은 더욱 그 感覺을 더하고 있다. 특히 보통의 誕生佛은 右手를 들고 있는 것이 通例이나 이것에서는 左手를 들고 있는 것이 注目된다.

記錄된 台帳上의 時代規定을 高麗로 보고 있으나 素髮의 形像과 尊容等의 處理와 兩手의 形態等이 정연한 것으로 보아 高麗時代佛像으로 보기도 하는 時代가 올라 가는 新羅統一期로 보아도 無理가 아닌 誕生佛로 생각되는 바이다.



圖 7. 金銅誕生釋迦像



圖 6. 青銅誕生釋迦像

一九一六年三月二四日 國庫에 歸屬되어 現在 國立中央博物館所藏品(所藏番號三三四)으로 登錄保存되어 오는 全高 一四·八cm의 金銅誕生佛이다. 典型的인 誕生佛의 樣式과 手法를 갖춘 것으로 素髮에 큼직한 肉髻을 頭頂에 갖추고 兩耳와 콧날이 뚜렷하고 正眼한 尊容을 하고 있으나 尊容에 비해 一字로 다문 입은 과대하다. 허리에 걸친 裳衣는 얼핏 보아 復瓣의 蓮瓣文樣을 한듯한 裳衣를 걸치고 있으며 衣褶이 뚜렷한 裙衣帶를 나타내고 있다. 現在 무릎以下는 缺失되어 양발과 台座의 形態를 알 수 없으나 右手를 들어 올린 形像이나 손바닥을 펴고 아래를 가리킨 左手는 三國時代나 統一期の 佛像에서 보이는 곧고 간결한 手法을 하고 있다. 全裸의 佛身에 비해 佛頭가 過大하게 表現되기는 하였어도 全體的인 形態로 보아도 그 樣式과 手法이 統一新羅時代의 佛像形像을 갖춘 것으로 역시 이 時代 作品으로 生覺된다.

### 5. 金銅誕生釋迦像(圖 5)

### 6. 金銅誕生釋迦像(圖 6)

一九一五年 七月九日 高岡玉吉로 부터 구입하여 現在 國立中央博物館의 所藏品(所藏番號 德五四〇二)으로 登錄保存되어 오는 全高 一五cm, 身高 一三·九cm, 台座高 一·一cm의 佛像이다.

右手는 天上을 가리키고 있으나 現在 손목部分이 缺失된 상태이고 左手는 第二指를 편체 天下를 가리키고 있는 典型的인 手法을 나타낸 形像이며 머리는 螺髮로 되어 있으며, 兩耳는 길게 느리워져 있고 이마에



圖 8. 金銅誕生釋迦像

는 白毫를 나타냈으며 半開한 兩眼과 콧날 등이 날카롭게 表現되어 있다. 一字로 굳게 닫은 입은 날카롭고 근엄한 尊容을 더하고 있다. 또한 목에는 뚜렷한 三道를 갖추고 있고 허리에 걸친 裳衣역시, 裙衣의 머를 나타내고 가장자리에 굽은 波狀形의 衣褶을 나타내며 中央에는 逆三角形式의 굽은 衣褶을 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양다리는 곧고 秀麗하게 처리하였으며 양발은 앞으로 하며 六瓣의 花形 蓮花臺를 딛고 있도록 鑄造하여 處理한 것이 他誕生佛에서 볼 수 없는 特異한 樣式을 갖추고 있는 것이 注目된다. 全體的으로 보아 이 誕生佛역시 佛身에 비해 머리가 過大하게 처리되어 있고 또한 兩眉問사이에 白毫를 갖춘점과 臺座의 單純處理等으로 보아 그 鑄造年代와 樣式 手法 등이 統一新羅時代로 推定케 되는 秀作의 誕生佛로 보는 바이다.

7. 靑銅誕生釋迦像(圖 7)

一九四二年 七月 七日 岡石峰吉이라는 자로부터 구입한 誕生佛로서 現



圖 9. 金銅誕生釋迦像

在國立中央博物館所藏品(所藏番號一四七一六)으로登錄保存되어 오는 全高一〇・三cm의 佛像이다。像全體에 靑銅이 심하게 번져 있고 上部가 破失되어 있으며 무릎 以下는 缺失되어 台座와 양다리의 形상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右手는 天上을 左手는 天下를 가리키나 手印이 不明치 않으며 머리는 素髮에 肉髻를 가추고 목에는 三道를 나타내고 있으며 尊容에 있어 콧날과 兩眼, 口 등이 뚜렷하게 表現하고 있으나 양볼이 肥滿하여 相好全體가 둔하게 보인다。허리에 걸친 裳衣역시 뚜렷한 아무런 文樣없이 線으로 單純한 線刻의 文樣 몇개를 表現하였을 뿐 不明하다。

尊容과 手印의 형태, 佛像自體가 갖는 균형미의 결여, 裳衣의 衣紋 처리 등이 둔탁하고 肥滿하게 처리한 手法 등으로 보아 그 鑄造年代를 高麗時代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圖10. 鍍金鐵製誕生釋迦像

#### 8. 金銅誕生釋迦像(圖8)

一九二一年五月一六日 李性懋으로 부터 購入하여 過去 德壽宮美術館에 所藏되었다가 現在는 國立中央博物館(所藏番號 德二八四〇)에 移管 保存되어 오는 全高一四・七cm의 金銅製誕生佛이다。

佛像의 形像은 通式의 手法를 갖춘 것으로 兩手의 팔굽부분과 兩다리의 무릎以下가 缺失된 것으로 머리는 螺髮에 목에는 三道를 하고 허리에 裳衣를 걸치고 있으나 머리의 螺髮이나 허리에 걸친 裳衣의 衣紋 처리 手法이 몹시 簡略하고 戲畫的인 手法으로 처리한 것이 注目되는 흥미있는 誕生佛이다。半開한 兩眼이나 오무라진 입의 形態는 흥미롭고 재미 스러우며 또한 가슴부분과 腹部를 細線으로 구분하는 表現은 다른 佛像에서 볼 수 없는 형태이고 아울러 腹部를 볼르게 나타낸 것 등도 특이 하거니와 그 밑으로 裳衣가 쳐져서 걸친 것도 特別의 表現法이다。特別히 머리의 螺髮表現 手法도 얼핏보아 方眼線을 친 것과 같이 方格으로 하여 으며 또한 이상한 모자나 티반을 쓴 듯한 형상으로 되어 있어 全體적으로 볼 때 다른 誕生佛에서 볼 수 없는 여러가지 점을 구비한 特殊한 例의 佛像으로 여겨지며 그 手法과 樣式으로도 法目되는 것으로 鑄造製作年代를 기록된 대장에서와 같이 三國時代로 보기보다는 좀더 時代가 내려오는 羅末麗初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圖11. 青銅製誕生釋迦像



圖13. 金銅誕生釋迦佛



圖12. 金銅製誕生釋迦像

9、金銅誕生釋迦像(圖9)

出土未詳으로 現在 國立中央博物館의 所藏品(所藏番號 M三三五—九)으로 登錄保存되어 오는 全高 一一·八cm、身高 一〇cm、台座高 一·八cm、台座徑 八·五cm의 金銅製誕生佛像이다.

머리는 素髮에 肉髻을 갖춘듯한 形像을 하고 있고 또한 머리後面에는 光背를 附着시켰던 突起가 남아 있다. 尊容에서는 兩耳와 兩眼 그리고 光背가 뚜렷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허리에는 裳衣를 걸치고 있는바 裳衣의 앞과 앞뒤자락의 衣紋에 逆Ω形으로 衣紋을 처리한 것이 特徵이다. 또한 右手는 天上을 가리키면서도 머리에 附着시켜 擧手敬禮를 하듯 되어 있고 左手역시 허리에 附着되어 언뜻보아 軍人이 不動姿勢를 취하는 듯한 姿勢이다. 台座는 圓形이며 單瓣伏蓮으로 蓮瓣의 形式도 古式을 나타내고 있다.

佛身과 台座는 一造로 鑄造한 誕生佛로서 허리에 걸친 裳衣의 衣紋은 逆Ω形의 古式주름으로 되어 있는바 이와 類似的한 衣紋을 갖추고 있는 佛像으로는 七세기 前半期로 推定되는 國立中央博物館所藏의 金銅藥師如來立像(國版 18 參照)의 衣褶에서 볼 수 있다. 衣紋과 蓮瓣上으로는 古式의 形狀을 하고는 있으나 佛像全體의 樣式手法等으로 보아서는 三國時代로 보기보다는 統一新羅時代를 넘지 않는 時代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본다.

10、鍍金鐵製誕生釋迦像(圖10)

이 誕生佛역시 出土地 未詳으로 現在 國立中央博物館에 所藏된 所藏

品(所藏番號M三三五—七)으로서 全高 一二·七cm、身高 一〇·八cm、台座高 一·九cm、台座徑 四·四cm의 一身으로 鑄造한 圓形台座를 갖춘 誕生佛이다.

이 佛像은 特異하게도 右手代身 左手를 들어 天上을 가리키고 있으며 머리에 素髮에 낮은 肉髻를 갖춘 形상을 하고 있고 後頭部에 光背를 附着하였던 突起가 남아 있다. 尊容에 있어 兩耳와 鬚鬚, 입술 등이 毛髮이 심하여 그 形상을 파악키어 려우며 허리에 裙衣의 띠가 뚜렷이 보이고 있고 그 밑으로 蓮瓣紋과 같은 衣褶이 강한 裳衣를 갖추고 있다. 또한 몽툭한 양다리는 一造로 鑄造되어 있는 상태이며 받치고 있는 圓形台座에는 古式의 單瓣伏蓮을 彫飾하고 있다. 全體的인 手法樣式으로서는 역시 高麗佛에서 보이는 手法과 樣式이 질게 보이고 있어 鑄造製作年代도 高麗時代로 推定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본다.

### 11、靑銅製誕生釋迦像(圖11)

一九二一年 七月 一七日 江口虎次郎으로부터 구입하여 現在 國立中央博物館 所藏品(所藏番號 德一九四九)로 登錄保存되어 오는 全高 一六cm、身高 一五·六cm의 誕生佛로서 天上을 가리키는 右手가 缺失되어 있고 左手는 손바닥을 踵에 아래를 가리키고 있다. 머리에 是 뚜렷한 螺髮에 肉髻를 갖추고 있으며 尊容은 肥滿形으로 양분이 不족하다. 半開한 兩眼이나 높은 鬚鬚 그리고 낮은 작은 口, 길게 늘어뜨린 兩耳의 處理手法이 몹시 둔탁하게 보이고 있어 典型的인 高麗佛像의 느낌을 강하게 하고 있다. 목에 나타낸 三道와 左手의 手印處理도 역시 粗雜하며 허리에 걸친 裳衣역시 簡略하고 形式的이며 衣褶의 處理도 單純하고 圖式化되어 있다. 現在 兩足下의 台座는 缺失된 상태이나 全體的인 手法樣式으로 보아 高麗佛像의 典型양식을 갖춘 것으로 그 鑄造製作年代는 高麗時

代로 보는 바이다.

### 12、金銅製誕生釋迦像(圖12)

出土未詳으로 現在 國立中央博物館의 所藏品(所藏番號 M三三五—八)으로 登錄保存되어 오는 全高 一六·一cm、身高 一二cm、台座高三·九cm



圖14. 金銅誕生釋迦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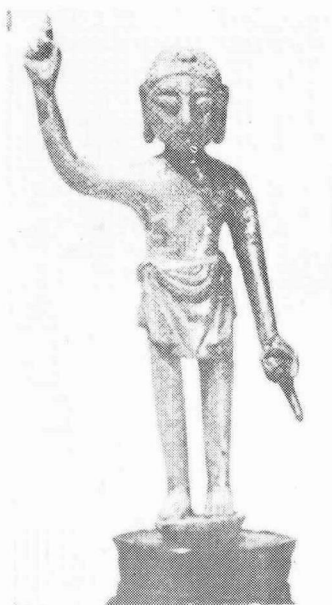


圖15. 金元全所藏 金銅誕生釋迦像

하게 처리되었으며 목에는 三道의 흔적이 보인다. 또한 가슴에는 젓가슴은 알파하게 나타내고 있고 허리에 걸친裳衣에는 裙衣의 띠(帶)가 보이고 있고 裳衣는 前後 同一한 形態의 것을 갖추고 있으며 衣紋의 表現도 細線으로 簡略하게 處理하였다.

또한 양다리는 三國時代나 統一新羅時代佛像에서 보이는 곧고 秀麗한 다리가 아니라 肥滿하고 몽툭한 다리로 처리하고 있으며 台座역시 單瓣重葉의 仰蓮伏蓮의 二重台座를 구비하고 있는 바 樣式 手法이 高麗佛像(圖版19 參照)에서 같은 諸點을 충실히 따른 佛像으로 造成年代는 高麗時代로 推定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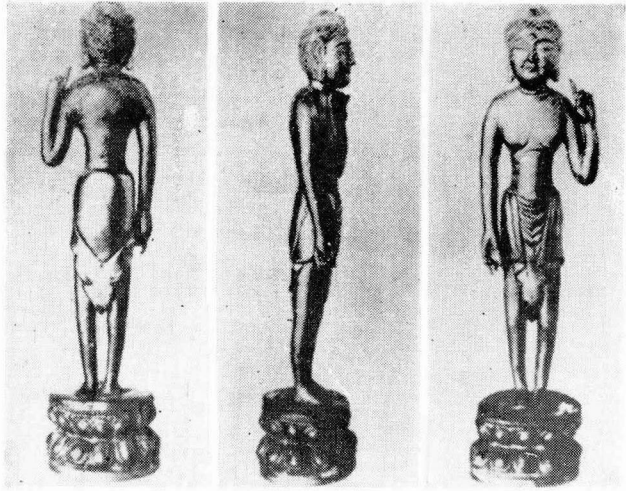


圖16. 楡岾寺 金銅誕生釋迦像

台座徑 四·六 cm의 誕生佛이 右手를 缺失한 것이외에는 거의 完全한 狀態를 보존하고 있는 通式의 誕生佛로서 머리는 螺髮에 肉髻를 갖추고 있고 兩耳는 길게 늘어뜨리고 尊容은 肥滿形으로 半開한 兩眼이나 오뚝 솟은 콧날과 담은 작은 입 등이 둔탁

13. 金銅誕生釋迦佛(圖13)

현재 國立中央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全高 一〇·七cm의 短軀佛像으로 ⑤ 다른 誕生佛의 형식과는 약간 차이를 보이는 形狀을 하고 있다. 尊容은 肥滿하고 머리에는 肉髻를 갖추고 있으며 兩眼은 半開하였고 콧날은 오뚝하다. 입은 작으나 尊容全體의 形狀으로 보아 미소를 띠고 있다. 목에는 三道가 없으며 어깨는 넓고 上體는 裸形인데 젓가슴이 뚜렷이 나타내었고 허리에는 裙衣의 띠와 매듭이 보이고 있으며 裳衣의 자락은 무릎까지 덮혀 있고 중앙부에는 〇形의 주름이 나있다. 특히 오른손은 天上을 가리키지 않고 가슴앞에서 들어 손바닥을 밖으로 하고 拇指와 人指를 편 형상을 하고 있다. 양다리는 짧고 몽툭하며 像을 받치고 있는 臺座는 끝이 날카롭고 瓣根이 隆起된 單瓣의 蓮瓣으로서 臺座全體가 半球形의 伏蓮座로 되어 있다.

이상의 手法 等으로 보아 佛身의 造形이나 彫像樣式이 百濟樣式과 유사한 點도 있으나 우선은 그 造成年代를 三國時代末期인 七世紀前半期로 推定한다.



圖17. 在日 金銅誕生釋迦像



圖18. 金銅藥師如來立像



圖19-1. 鐵製阿彌陀如來坐像



圖20. 慶州拜里三體石佛



圖19-2. 青銅製 高麗時代 如來座像



圖21 三花領 出土 如來像

14、金銅誕生釋迦像(圖14)

이佛像 역시 현재 國立中央博物館 所藏品으로 全高 九·九cm의 誕生佛⑥이다. 몸은 가늘고 長身の 도금된 상태이나 도금은 거의 탈락되어 곳곳에 약간의 흔적이 남아 있고 佛身에 비하여 佛頭는 큰 편이다. 머리의 頭髮은 素髮이며 그 위에 상투 같이 보이는 오뚝하고 작은 쪽지가 달려 있다. 兩眼은 半開하였고 콧날은 높고 크며 입은 작고 약간의 미소를 띠고 있다. 또한 목에는 三道가 없으며 上體는 裸形이고 허리에 짧은 裳衣를 걸치고 있는데 그 紋樣은 세로로 주름이 나있을 뿐이다. 左手는 늘어뜨려 손바닥을 편 상태이고 右手는 손바닥을 펴서 天上을 가리키는 형상이나 어깨높이 들어올린 것이 아니라 어깨밑으로 약간 들 어올린 듯한 형태를 하고 있다. 발밑에 납작하고 圓形인 伏蓮臺座를 갖 추고 있어 誕生佛의 典型樣式을 충실히 갖춘 佛像으로 造成年代 역시 統一新羅初期로 推定되는 誕生佛의 좋은 예이다.

15、金元全氏所藏金銅誕生釋迦像(圖15)

全高 一九·九cm의 誕生佛⑦로서 머리는 螺髮이며 相好는 佛身에 비례해 큰 편이다. 兩耳는 크게 늘어뜨려진 형상이고 兩眼은 半開하여 아래를 보고 있으며 콧날과 입은 작고 근엄하게 表現되어 있다. 全身이 裸形으로서 허리에는 사실적인 주름을 나타낸 裳衣를 걸치고 있다. 兩手는 人指만 펴으며 右手는 위를 가리키고 左手는 아래를 가리키고 있다. 또한 양 다리는 곧게 처리하고 裸形으로 되어 있고 양발은 나란히 앞을 향하였으며 발밑의 臺座는 원주형의 작은 臺座로 造成되어 있다. 그러므로 全體의 表現되는 佛像의 형태는 간략한 樣式과 手法를 보이면서 誕生佛의 性格을 잘 表現한 것으로 高麗佛(圖版19 參照)에서 보이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바 造成年代 역시 十二世紀頃인 高麗時代로 推定된다.

16、楡帖寺金銅誕生釋迦像(圖16)

楡帖寺 本殿인 能仁寶殿의 主尊으로 奉安되어 온 五三佛中의 하나인 全高 二六·一cm、身高 二一·七cm、臺座高 四·四cm、臺座上徑 五·三cm×六·二cm、臺座下徑 五·九cm×七·二cm의 金銅誕生佛⑧이다. 佛像과 臺座는 별개로 鑄造되어 附着시킨 것으로 頭髮은 螺髮이며 內髻를 갖추고 있고 兩耳는 길고 兩眼은 半開하여 있다. 콧날은 高大하며 입은 작은 편으로 목에는 三道를 갖추고 있는 上下半身을 全裸로 되어 있는 佛像이다. 兩젓가슴은 늘어져 있으며 가냘픈 허리에 걸친 裳衣는 前後자락이 사실적인 紋樣과 접친 紋樣을 겸하여서 무릎까지 흘러내려 있고 手相은 他金銅誕生佛과는 달리 右手를 들은 것이 아니라

金銅誕生釋迦像時代別一覽表

No	名 稱	佛頭形態	兩手形態	領衣	裳衣紋樣	臺座形態	白毫	三道	全高	身高	臺座高	時 代	備考
1	江華清水庵址誕生佛	螺髮, 肉髻	右上下向, 左手上下向	有	逆三角紋	單瓣仰蓮重	無	無	25.4	21.4	3.6	高麗	
2	忠南錦山出土誕生佛	素髮, 肉髻	右上下向, 左手上下向	有	不 明	單瓣伏蓮	無	無	4.6	3.26	1.34	三國時代	
3	慶北安東出土誕生佛	素髮, 肉髻	右上下向, 左手上下向	有	單純瓔珞	無	無	無	7.71			統一新羅	初羅
4	金 銅 誕 生 佛	素髮, 育髻	右上下向, 左手上下向	有	素 文	單瓣仰蓮伏	無	無	16.48	10.16	2.48	統一新羅	
5	金 銅 誕 生 佛	素髮, 肉髻	右上下向, 左手上下向	有	蓮 瓣 文	無	無	無	14.8			統一新羅	
6	金 銅 誕 生 佛	螺髮	右上下向, 左手上下向	有	逆三角文	六瓣花形	有	有	15	13.9	1.1	統一新羅	
7	青 銅 誕 生 佛	素髮, 肉髻	右上下向, 左手上下向	無	素 文	缺 失	無	有	10.3			高麗	
8	金 銅 誕 生 佛	螺髮	右上下向, 左手上下向	無	素 文	缺 失	無	有	14.7			羅末麗初	
9	金 銅 誕 生 佛	素髮, 肉髻	右上下向, 左手上下向	無	逆 Ω 形	單瓣伏蓮	無	無	11.8	10	1.8	統一新羅	
10	鍍金鐵製誕生佛	素髮, 肉髻	右上下向, 左手上下向	有	蓮 瓣 文	單瓣伏蓮	無	無	12.7	10.8	1.9	高麗	
11	青銅製誕生佛	螺髮, 肉髻	右上下向, 左手上下向	無	單 文	純 文	無 重 葉	有	16	15.6		高麗	
12	金 銅 製 誕 生 佛	螺髮, 肉髻	右上下向, 左手上下向	有	單 線 刻	單 仰 重 蓮	無 二 重	有	16.1	12	3.9	高麗	
13	金 銅 製 誕 生 佛	螺髮, 肉髻	右上下向, 左手上下向	有	逆 Ω 形	單 仰 重 蓮	無	無	10.7			三國時代	
14	金 銅 製 誕 生 佛	素髮, 상 髻	右上下向, 左手上下向	有	逆 Ω 形	單 仰 重 蓮	無	無	9.9			統一新羅	初羅
15	金元全所藏誕生佛	螺髮, 肉髻	右上下向, 左手上下向	有	逆 三 角 文	單 仰 重 蓮	有 二 重	有	19.9			高麗	
16	榆帖寺誕生佛	螺髮, 肉髻	右上下向, 左手上下向	無	逆 三 角 文	單 仰 重 蓮	有 二 重	有	26.1	21.7	4.4	高麗	
17	在 日 誕 生 佛	素髮, 肉髻	右上下向, 左手上下向	無	逆 三 角 文	單 仰 重 蓮	無	無	13	10.7		三國時代	

左手를 어깨부분까지 手指를 兩상대로 들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右手는 人指와 拇指를 서로 맞대고 다른 손가락을 兩상대로서 天下를 가 리키고 있다. 특히 尊容의 兩眉間上에는 白毫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 으 며 양 다리는 곧게 세련되게 뻗고 양 발을 앞으로 하여 臺座를 딛고 있 는 형태이다. 臺座는 半橢圓形의 單瓣仰伏蓮의 二重蓮花座로 되어 있다 특히 이 佛像은 그 造成年代上으로 보더라도 高麗時代의 代表가 되는 誕生佛의 一例로서 注目되는 佛像中の 하나인 것이다.

17、在日金銅誕生釋迦像(圖17)

과거 駐日公館에 保管되어 있던 三個의 佛像中 一個로서 考古美術 五卷八號에 소개된 바 있는 赤色鍍金을 한 全高一三cm、身高一〇·七cm의 작은 誕生佛⑨이다. 臺座는 둥근 足座만이 남아 있고 佛像身部 保存은 完全하나 여러군데 靑綠銹가 보이고 있다. 長身의 身部는 直立 하여 右手를 들었고 左手는 아래를 가리키고 있으나 身部에 밀착시키고 있다. 上半身은 裸身이며 허리에는 裳衣를 걸치고 있는 바 前後同一의 屈曲이甚한 衣褶文을 彫刻하였다. 머리는 素髮이며 頭頂에 큰직한 肉髻를 하고 있고 또한 相好는 淸淨하게 하였고 兩眼은 半開하고 입은 작게 다물고 있고 콧날 역시 뚜렷하게 彫飾한 古式을 보이는 誕生佛로 서 그 樣式과 全體의 手法이 三國末 七세기경의 佛像들과 유사점을 갖고 있어 그 造成年代도 同時代로 推定하는 바이다.

이상으로서 一七點의 誕生佛中 三國時代、統一新羅時代、高麗時代로 區分되는 諸形像의 佛像들을 개관하면서 대략의 區分과 時代判別을 할 수 있는 點을 定立할 수 있었다고 본다.

三國時代에 屬하는 誕生佛은 菩薩像이나 如來像 등의 여러 種類 佛像

에서 表現되는 方法을 답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佛像의 형상이 사실적이며 날카롭게 表現하는 共通點을 갖고 있는 同時 衣紋의 처리는 彫飾方法이 대부분 素髮이며 相好의 처리도 준수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統一新羅時代에 이르러서는 誕生佛 역시 이 時代에 屬하는 石造, 金銅製의 如來像이나 菩薩像에서 보이는 여러 點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佛像의 頭髮은 역시 螺髮이며 相好의 처리도 원만하고 佛身自體가 갖는 형태는 豊만하면서 當堂함을 表現하고 있다. 衣紋의 처리도 이 時代에 屬하는 諸佛像에서 表現되는 것과 같이 秀麗하고 원만하고 또한 부드럽게 보이고 있는 點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高麗時代에 이르러서는 誕生佛 역시 高麗佛에서 보이는 파와 같이 頭髮의 彫飾方法이 圖式化되어 가며 相好의 처리도 肥滿되게 表現하고 있고 佛頭와 佛身과의 비례 역시 과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물론, 手印의 처리나 衣紋의 처리가 거칠고 略式한 형태로 되어 가며 全體의 表現方法도 둔탁하고 肥滿되게 表現하고 있는 點이라 할 수 있다. 또한 臺座에서 나타나는 蓮瓣의 紋樣 역시 그 彫飾方法이 三國時代나 統一新羅時代와 같이 날카롭고 秀麗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時代를 넘지 못하는 通例의 蓮瓣彫飾 手法을 갖추고 있는 點이라 할 수 있다<sup>10)</sup>. 그러므로 各時代에 屬하는 誕生佛 역시 그 時代 時代에 따라 나타나는 諸般手法과 樣式을 답습하여 表現하고 있는 사실을 發見할 수 있으며 또한 臺座에서부터 佛身과 裳衣의 紋樣처리, 蓮瓣의 彫飾手法, 相好의 表現方法 등이 역시 그 時代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發見할 수 있다.

〈註〉

① 洪潤植·華嚴經의 表現, 聖寶文化財保存管理教材 P 二〇—二二(文化財管理局刊一九七六, 六)

佐和隆研編·佛像圖典, P 一八 1 如來部參照(吉川弘文館刊, 一九七五, 二、

二〇)

- ② 奏弘燮著·韓國의 佛像, P 九五, 佛像의 姿勢(一志社刊, 一九七六, 四, 二五)
  - ③ 春宮里鐵造如來座像(寶物 三三三號)과 浮石寺塑造如來坐像(國寶 四五號) 등에서 보이는 佛頭에 있어서의 螺髮과 肉髻의 처리와 前頭部分에 剝髮한 부분이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양식은 高麗佛에서 흔히 보이는 手法이다.
  - ④ 拙稿·華城郡紙串里出土 金銅觀音像, 考古美術 六卷六號(韓國美術史學會刊 一九六五, 六)
  - ⑤ 奏弘燮著·韓國의 佛像 P 二二八 Z。 五三(一志社刊 一九七六, 四, 二五)
  - ⑥ 前掲書 P 二二九, 五四 參照
  - ⑦ 前掲書 P 三二七, 一六七 參照
  - ⑧ 黃壽永著·韓國佛像의 研究 P 二九一 楡岾寺 五三佛中 圖版 七九와 P 三一의 圖版 七九 解說文參照(三和出版社刊 一九七三, 四, 一〇)。
  - ⑨ 黃壽永·考古美術 五卷八號 在日金銅佛像三軀(韓國美術史學會刊 一九六四, 八)
  - ⑩ 金元龍著·韓國美術史 三國時代 佛像彫刻과 統一新羅時代, 高麗時代 佛教彫刻各項參照(汎文社刊 一九七八, 四, 三〇)
- 金載元著·朝鮮美術史 第三章 佛教彫刻參照(株式會社 美術出版社刊 一九六七, 九, 一五)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學藝研究官)